

## 대인 성적 대상화 경험과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기준의 내면화가 섭식장애 증상에 미치는 영향: 무용 전공 여대생과 일반 여대생 비교

김 시 연      백 근 영      서 영 석<sup>†</sup>

연세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대상화 이론 및 섭식장애 관련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대인관계에서의 성적 대상화 경험이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기준의 내면화, 신체감시 및 신체 수치심을 매개로 섭식장애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적 구조모형을 설정하고 여자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그 적합도를 검증하였다. 또한 사회문화적인 압력에 따라 섭식장애와 관련 변인들의 영향력이 다를 것으로 가정하여 무용 전공 여대생과 일반 여대생을 대상으로 모형의 적합도 및 개별 변수의 영향력을 비교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 및 경기 소재 대학의 일반 전공 여대생 154명과 무용 전공 여대생 9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 결과, 연구모형은 전체집단뿐 아니라 각각의 집단에 대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고, 전체집단의 경우 연구모형은 섭식장애 증상 변량의 58%, 무용 전공 집단은 49%, 일반 집단은 68%를 각각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전공 여대생과 무용 전공 여대생을 구분하여 연구모형의 적합도와 경로계수를 비교한 결과, 우선 본 연구에서 설정한 매개모형은 두 집단 모두에서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가 섭식장애 증상에 미치는 영향은 무용 전공 집단에서 더 큰 반면, 대인간 성적 대상화경험이 신체감시에 미치는 영향과 신체감시가 신체 수치심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신체 수치심이 섭식장애 증상에 미치는 영향은 일반 여대생 집단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시사점과 추후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하였다.

주요어 : 대상화 이론, 성적 대상화 경험, 내면화, 섭식장애 증상, 무용전공 여대생, 다집단 분석

<sup>†</sup> 교신저자 : 서영석, 연세대학교 교육학과,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262  
Tel : 02-2123-6171, E-mail : seox0004@yonsei.ac.kr

마른 몸을 이상화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우리나라 여성들은 자신의 신체와 외모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한 신체적·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국제비만학회지(International Journal of Obesity)가 전 세계 22개국 남녀대학생들을 조사한 결과, 한국 여대생의 비만도 지수는 22개국 중 가장 낮았으나 다이어트 중인 여대생은 7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선일보, 2006.5.17). 또한 Jung과 Forbes(2007)의 연구에서는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가 한국여성들의 경우 저체중에 해당되는 17.93으로 중국의 18.61과 미국의 20.18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체존중감 점수 또한 조사국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우리나라 여성들의 이상 섭식행동을 조사한 선행연구들은 여대생의 10%, 여자 청소년의 15%가 섭식장애를 경험하고 있고, 섭식장애의 주된 원인으로 체중감량에 대한 강박관념을 언급하였다(권영숙, 2008; 이정윤, 2003; 임희진, 박형란, 구현경, 2009). 이상의 연구결과를 한국 여성들이 지각하는 신체 및 외모에 대한 이상적 기준이 타문화권에 비해 매우 엄격하며, 이러한 높은

기준은 결국 섭식 관련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대상화이론(objectification theory)(Fredrickson & Roberts, 1997)은 사회문화적 압력이 어떻게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하고 결국 섭식 장애 등 여성들이 경험하는 심리적인 어려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체계적으로 설명한다(그림 1 참조). 이 이론에 따르면, 여성들은 여성의 외모에 관심을 기울이는 대중 매체 및 사회적 분위기에 노출될 뿐 아니라 자신의 신체에 대한 타인들의 평가에 지속적으로 노출된다(성적 대상화 경험; sexual objectification experiences). 이런 성적 대상화 경험으로 인해 여성들은 마치 타인이 대상(an object)을 평가하듯 자신의 신체를 취급하게 되는데, 자신의 신체에 대한 타인의 관점을 내면화하는 것을 자기대상화(self-objectification)라고 하고 습관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감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Buchanan, Fischer, Tokar, & Yoder, 2008; Fredrickson & Roberts, 1997, p.180).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성적 대상화 경험으로 인해 신체감시를 유발하는 자기대상화가 증가하면 신체에 대한 수치심과 불안이 증가할 뿐 아니라, 몰입 상태를 경험하고 내적인 신체 상태를 인식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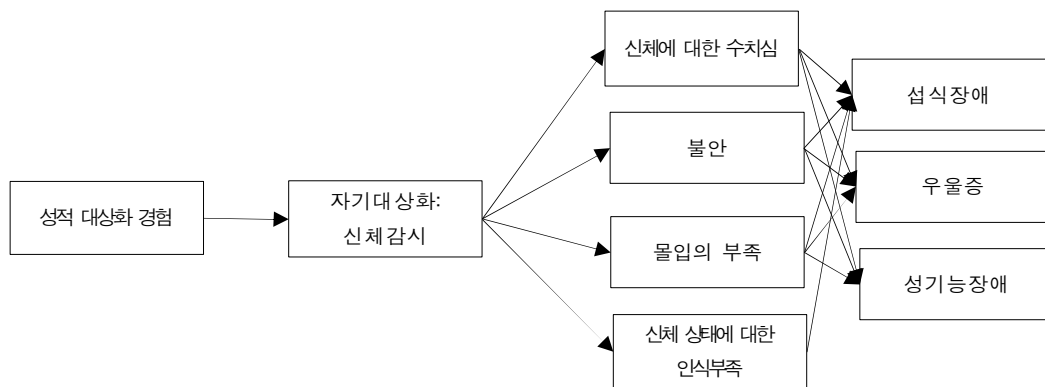


그림 1. 대상화 이론 모형(Fredrickson & Roberts, 1997)

것이 감소되며, 결국 남성보다는 여성에게서 더 자주 나타나는 우울, 섭식장애 및 성기능 장애 등이 유발된다(Fredrickson & Roberts, 1997).

많은 연구를 통해 대상화 이론의 타당성이 입증되어왔다. 예를 들어, Fredrickson, Roberts, Noll, Quinn과 Twenge(1998)는 실험연구를 통해 성적 대상화 경험이 신체감시 및 신체수치심, 그리고 섭식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에서 실험 참여자들(여성)은 큰 거울이 있는 방에 혼자 들어가 수영복과 스웨터 중 하나를 배당받아 착용한 후,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평가하도록 요청받았다. 방에서 나온 참가자들은 음식이 준비된 다른 방에서 신체수치심 관련 설문을 작성하였고, 자유롭게 음식을 먹도록 권유받았다. 연구결과, 스웨터를 입은 집단에 비해 수영복을 입은 집단의 신체수치심이 높게 나타났으며, 음식의 섭취량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연구에서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수영복과 스웨터 중 하나를 배당받아 착용한 후, 음식이 준비된 방에서 수학문제를 풀게 하였다. 연구 결과, 수영복을 입은 여성들이 스웨터를 입은 여성들에 비해 수학점수가 낮았으며, 섭취한 음식의 양 또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성들의 경우에는 스웨터를 입은 집단과 수영복을 입은 집단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상화이론이 여성들에게 적합한 이론임을 시사한다. 이후 많은 후속 연구에서 대상화 이론을 적용하였고, 다양한 성적 대상화 경험이 신체 수치심, 불안, 섭식장애, 자기효능감 감소 및 우울 등 심리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예, Cattarin, Thompson, Thomas, & Williams, 2000; Cutler & Nolen-Hoeksema, 1991; Deep, Lilienfeld,

Plotnicov, Pollice, & Kaye, 1999; Fitzgerald, Drasgow, Hulin, Gelfand, & Magley, 1997; Grabe, Hyde & Lindberg, 2007; Harrison & Cantor, 1997).

국내에서도 대상화 이론을 바탕으로 여성들의 섭식장애를 설명하려는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손은정(2007)은 215명의 여자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공적 자기의식, 신체 감시 및 신체 수치심이 섭식장애 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 손은정은 ‘공적 자기의식’을 타인에게 관찰되어지는 자신의 말과 행동에 집중하는 보다 포괄적인 성격 요인으로 정의하고, 특히 자신의 외모에 주의를 집중하는 자기대상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였다. 연구 결과, 공적 자기의식은 신체 감시(자기대상화)와 신체 수치심을 매개로 섭식장애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선안남(2008)의 연구에서는 성역할 정체감에 따라 자기대상화 및 신체수치심이 섭식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 성역할 정체감이 높은 집단에서는 신체 수치심이 자기대상화와 부정적인 섭식행동 간 관계를 매개하는 반면, 남성 성역할 정체감이 높은 집단에서는 자기대상화와 섭식행동이 서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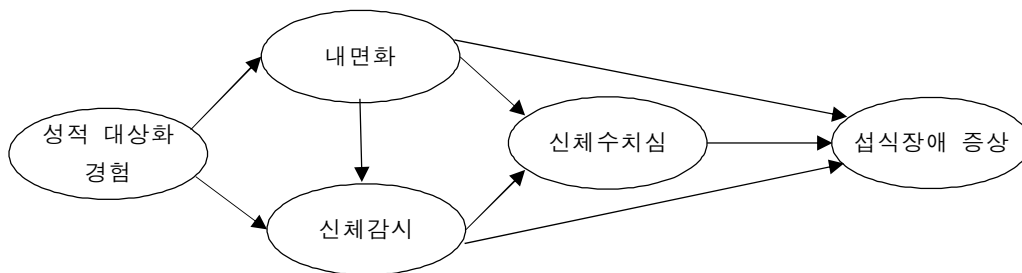
한편, 기존의 대상화 관련 연구들이 자기대상화의 결과로 나타나는 섭식장애 증상이나 우울 등에 초점을 맞춘 반면, 최근 수행된 연구들은 자기대상화의 선행변인(성적 대상화 경험, 내면화)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 우선, 성적 대상화 경험은 대인관계에서의 상호작용을 통해 빈번히 일어난다. 특히, “대상화하는 시선(objectifying gaze)”, 즉 여성의 신체를 성적인 시선으로 응시하는 행위는 가장 대표적인 성

적 대상화 경험이며,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기여를 한다(Fredrickson & Roberts, 1997). 이러한 이론적 주장에도 불구하고 실증적인 연구에서 성적 대상화 경험을 주요 변인으로 포함시킨 것은 최근의 일이다(예, Moradi, Dirks, & Matteson, 2005; Tylka & Hill, 2004). 특히, Moradi 등은 대인관계에서의 성적 대상화 경험이 중요한 선행 변인임에도 불구하고 대상화 관련 연구들에서 관심을 적게 받았다고 지적하면서, 추후 진행되는 대상화 관련 연구에서는 성적 대상화 경험을 주요 변인으로 포함시켜 섭식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통합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Morry와 Staska(2001) 그리고 Moradi 등의 연구에서는 성적 대상화 경험에 영향을 받으면서 다시 자기대상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내면화’(internalization)를 설정하고 그 매개효과를 입증하였다.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성적대상화 경험에 많이 노출될수록 여성들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를 내면화하는 정도가 커지고, 이는 결국 신체감시, 신체수치심 및 섭식장애 증상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상화 이론을 바탕으로 여성들의 섭식행동을 설명한 국내 연구들에서는 성적 대상화 경험 및 내면화 과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기타 변인 간 관련성을 탐색한 제한점을

지니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여성들의 외모에 대한 기준이 매우 높고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지각하는 사회구조적인 현실을 고려한다면, 외현적인 신체감시로 나타나는 자기대상화 이전의 변인, 즉 성적 대상화 경험과 내면화 과정을 모형에 포함시켜 다른 대상화 관련 변인들과의 관련성 및 섭식장애 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압력을 많이 경험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여자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존의 대상화 관련 국내 연구들이 고려하지 않았던 대인관계에서의 성적 대상화 경험과 내면화 과정을 주요 선행 변인으로 모형에 포함시키고, 신체감시와 신체 수치심, 그리고 섭식장애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적 구조모형을 설정하고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성적 대상화 경험과 내면화가 포함된 구조모형의 적합도가 집단(일반 여대생, 무용 전공 여대생)에 따라 다른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는 외모에 대한 기준이 다른 집단에서는 섭식 관련 태도나 행동이 다를 뿐 아니라, 관련 변인들의 영향력 또한 집단마다 다르다는 선행연구들(오세진, 이만균, 2006; 육영숙, 2008; 이종희, 안정옥, 2000; 최윤선, 2008; Downs, 2006; Tiggermann & Slater, 2001)에 근거한 것이다. 몸이 중요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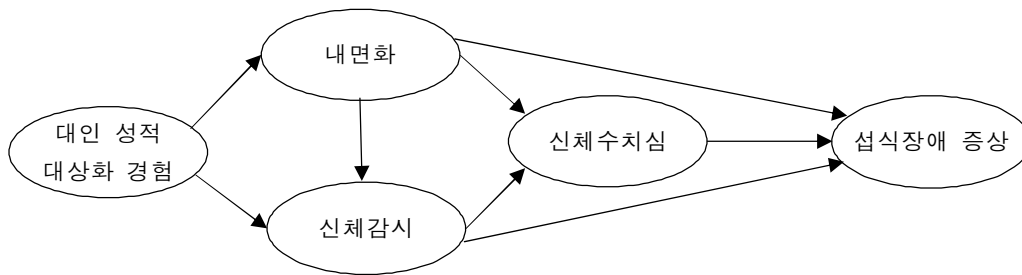


그림 3. 연구 모형

의사소통 도구인 무용 전공 여성들은 섭식 절제나 체중조절에 대한 비가시적인 사회적 압력에 노출되어 있다(최상아, 2008). 실제로 무용을 전공하는 여대생들의 33%가 거식증 증세를 보이고 있으며(Brooks-Gunn, Warreu, & Hamilton, 1987), 발레 전공자들이 일반 여대생보다 약 27% 정도 높은 거식증 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Kurtzman, Yager, Landsverk, Weismeyer & Bodurka, 1989). 또한 발레무용수의 9.3%가 거식증으로 분류되었고, 41%가 폭식을 하며, 18%는 구토제나 이뇨제 등 약물을 복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민희 1999). 이처럼 신체를 매체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해야 하는 무용 전공자들이 일반 여학생들보다 신체에 부과되는 사회문화적 압력을 더 크게 느낀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집단 간 비교를 통해 이러한 압력이 섭식장애 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 때 무용 전공 집단에 대해서도 대상화이론의 구조모형이 타당하게 적용되고 개별 경로계수에 대해서만 일반 전공 집단과 차이가 있다는 선행연구(Tiggemann & Slater, 2001)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두 집단에 대해 동일한 구조모형을 설정하고 모형의 적합도 및 개별 경로계수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여자대

학생들의 섭식장애 관련 증상을 이해하기 위해 Fredrickson과 Roberts(1997)가 제안한 대상화이론을 바탕으로 하되, 그 이후에 진행된 연구들에서 새롭게 채택한 대상화 관련 변인들을 통합적으로 포함시킨 구조모형을 설정하고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즉, 기존의 국내 연구에서 고려하지 않았던 대인관계에서의 성적 대상화 경험과 내면화 과정을 모형에 포함시켜 신체감시 및 신체수치심 등을 통해 섭식장애 관련 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집단에 따라 이상적인 외모의 기준이 다르고 이 때 느끼는 사회문화적인 압력 및 대상화 관련 변인들의 관계가 다를 것으로 가정하여, 무용 전공 여대생과 일반 여대생을 구분하여 모형의 적합도 및 개별 변수의 영향력을 비교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이론모형은 그림 3과 같으며,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인관계에서의 성적 대상화 경험이 내면화, 신체감시 및 신체 수치심을 매개로 섭식장애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집단(무용 전공 여대생, 일반 전공 여대생)에 따라 연구모형의 적합도 및 개별 경로계수는 차이가 있는가?

## 방 법

연구 대상 및 절차

자료 수집을 위해 서울 및 경기 소재 5개의 대학교에서 교양수업 및 전공수업을 수강하고 있는 일반 여학생과 무용 전공 여학생들에게 수업 중에 설문지를 완성하게 하였다. 총 320부의 설문지가 배부되어 260부의 설문지가 수거되었다. 이중 불성실하게 응답했거나 기재 사항을 누락한 8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252명의 설문지를 자료 분석에서 사용하였다 (일반 여학생 154명, 무용 전공 여학생 98명). 연구 참여자들의 전체 평균연령은 20.9세( $SD = 2.23$ )였으며, 무용 전공 여대생은 21.1세( $SD = 2.42$ ), 일반 여대생은 20.7세( $SD = 1.96$ )로 나타났다. 일반 여대생의 전공분포를 살펴보면, 어문학 5.7%, 인문과학 1.9%, 사회과학 8.5%, 상경계 16.0%, 교육학 52.8%, 공학 1.9%, 자연과학 3.8%, 법학 2.8%, 생활과학 및 가정학 3.8%, 의·치·간호계열 2.8%로 비교적 다양한 전공자들이 연구대상에 포함되었다.

몸무게 및 신장을 확인한 결과, 무용 전공 여대생들의 키는 150cm-180cm( $M = 163.76$ ,  $SD = 4.98$ )이었으며, 몸무게는 38kg-80kg( $M = 50.65$ ,  $SD = 5.65$ )로 나타났다. 일반 여대생들의 키는 150cm-174cm( $M = 162.06$ ,  $SD = 4.23$ )이었으며, 몸무게는 40kg-63kg( $M = 50.68$ ,  $SD = 4.50$ )로 나타났다.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를 비교한 결과, 무용 전공 여대생은 평균 18.86( $SD = 1.67$ )인 반면 일반 여대생은 평균 19.39( $SD = 1.60$ )로 나타나 두 집단 모두 BMI의 평균이 저체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BMI가 20미만은 저체중, 20-24는 정상체중, 25-30은 과체중, 30이상은 비만으로 간주한다.

측정 도구

대인관계에서의 성적 대상화 경험

본 연구에서는 지난 1년 동안 대인관계에서 지각한 성적 대상화 경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Kozee, Tylka, Augustus-Horvath와 Denchilk (2007)가 개발한 대인관계에서의 성적 대상화 척도(The Interpersonal Sexual Objectification Scale: ISOS)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ISOS는 신체 평가와 원치 않는 노골적인 성적 접근 등 2가지 하위척도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척도로 평정한다(1점 =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 매우 그렇다). 신체평가는 대인관계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외모를 응시하거나 평가하는 경험을 묻는 1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문항의 예로는 ‘당신은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있을 때 얼마나 자주 누군가가 당신의 가슴을 응시하는 것을 알아차린 적이 있습니까?’ 등이 있다. 노골적인 성적 접근은 실제로 성적인 행동이나 접근을 경험했는지를 4문항으로 묻고 있는데, 문항의 예로는 ‘얼마나 자주 누군가 당신에게 모멸적인 성적 제스처를 한 적이 있습니까?’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ISOS를 번역 및 역번역하였다. 우선, 연구자들이 각각 ISOS를 한글로 번안하였다. 세 명의 연구자들이 다르게 번역한 문항들에 대해서는 토론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 내었다. 둘째, 영어와 한국어를 동시에 구사하는 이중 언어 사용자인 인지심리학 전공 대학원생이 번안된 문항들을 다시 한글로 역번역하였다. 셋째,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심리학 전공 미국인이 ISOS의 원문과 역번역된 문항들을 비교하여 어감이 다른 문항들에 대해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자들이 수정, 보완을

거쳐 한국판 대인관계에서의 성적 대상화 척도(K-ISOS)를 완성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Kozee 등(2007)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2요인이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Kozee 등의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는 .90-.91이었으며, 3주간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84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치도는 전체집단 .91, 일반 여학생 집단 .84, 무용 전공 여학생 집단 .94로 나타났다.

#### 외모에 대한 사회 문화적 기준의 내면화

외모에 대한 사회 문화적 기준의 내면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HeinBerg, Thompson과 Stormer(1995)가 개발한 외모에 대한 사회 문화적 기준 척도(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s Appearance Questionnaire: SATAQ)를 이상선과 오경자(2003)가 번안하고 타당화한 한국판 외모에 대한 사회 문화적 기준 척도의 하위 척도인 내면화(Internalization)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개인이 외모에 대한 사회 문화적 기준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것으로 내면화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척도로 평정한다(1점 =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 매우 그렇다). 문항의 예로는 '나는 잡지와 TV에 나오는 사람들과 내 몸을 비교해보는 경향이 있다.' 등이 있다. 이상선과 오경자(2003)의 연구에서 전체 문항에 대한 내적 일치도는 .82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전체집단의 경우 .87, 일반 여학생 .89, 무용 전공 여학생 .84로 나타났다.

#### 신체 감시

본 연구에서는 신체감시를 측정하기 위해 Mckinley와 Hyde(1996)가 개발한 대상화된 신체 의식 척도(The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Scales)를 김완석, 유연재, 박은아(2006)가 번안하고 타당화한 한국판 객체화 신체 의식 척도(K-OBCS)의 하위 요인인 '신체에 대한 감시(Body Surveillance)'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신체 감시를 측정하는 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7점 척도로 평정한다(1점 = 전혀 그렇지 않다, 7점 = 매우 그렇다). 문항의 예로는, '나는 종종 내가 입고 있는 옷이 나에게 잘 어울리는지 걱정한다.' 등이 있다. 문항 총점이 클수록 자신의 신체가 어떻게 보일지를 관찰하고 신경 쓰는 경향이 많음을 의미한다. 김완석 등(2006)의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는 .83으로 나타났으며, 손은정(2007)의 연구에서는 .75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집단의 경우 .88, 일반 여학생 .87, 무용 전공 여학생 .88로 각각 나타났다.

#### 신체 수치심

신체 수치심을 측정하기 위해 Mckinley와 Hyde(1996)가 개발한 대상화된 신체 의식 척도(The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Scales)를 김완석, 유연재, 박은아(2006)가 번안하고 타당화한 K-OBCS의 하위 요인인 '신체 수치심(Body Shame)'을 사용하였다. 신체 수치심 척도는 총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7점 척도로 평정한다(1점 = 전혀 그렇지 않다, 7점 = 매우 그렇다). 문항의 예로는, '내 몸무게가 얼마인지 사람들이 알게 되면 부끄러워질 것이다' 등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신체에 대한 수치심이 높음을 의미한다. 김완석 등(2006)의 연구에서 신체 감시 척도의 내적 일치도는 .78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전체집단 .82, 일반 여학생 .82, 무용 전공 여학생 .81로 각각 나타났다.

### 섭식장애 증상

섭식장애 증상을 측정하기 위해 Garner와 Garfinkel(1979)이 개발한 식사태도 검사(Eating Attitudes Test-26: EAT-26)를 이민규 등(1998)이 번안하고 타당화한 한국판 식사태도검사-26(The Korean Version of Eating Attitude-26: KEAT-26)을 사용하였다. KEAT-26은 총 26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6점 척도로 평정한다(0점 = 전혀 아니다, 5점 = 항상 그렇다). 이 검사는 신경성 식욕부진증의 행동특성들을 측정하기 위해 제작되었으나, 정상 체중인 사람들 중에서 심각한 섭식 문제를 지닌 사람들을 확인하는 데에도 유용한 도구이다. 문항의 예로는, ‘자신이 멈출 수 없다고 느낄 때까지 계속 진탕 먹어댄다.’ 등이 있다. 최종 점수 산출 시 문항 당 0점에서 3점까지 채점되며(척도상의 0, 1, 2 = 0; 3 = 1; 4 = 2, 5 = 3으로 채점), 총점의 범위는 0점에서 78점까지 분포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이상 식사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한다. 이민규 등(1996)은 21점을 정상 집단과 섭식장애 성향 집단을 구분하는 절단점으로 제시하였는데, 21점 이상일 때 병리적인 섭식장애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원 척도의 내적 일치도는 .94로 나타났고 (Garner & Garfinkel, 1979), 이상선, 오경자(2003)의 연구에서는 .82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집단의 경우 .89, 일반 여학생 .86, 무용 전공 여학생 .92로 나타났다.

### 자료 분석

대인관계에서의 성적 대상화 경험, 내면화, 신체감시, 신체 수치심, 섭식장애 증상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AMOS 18.0을 사용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chi^2$ 뿐

만 아니라 RMSEA, TLI, CFI를 함께 살펴보았다. 이 때, 자료가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각 변인의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이 2와 7을 넘지 않는지 확인하였다(Lei & Lomax, 2005). 또한 본 연구에서는 Russell, Kahn, Spoth와 Altmaier(1998)의 제안에 따라, 하위요인이 존재하는 성적대상화 경험과 섭식장애 증상을 제외한 내면화, 신체감시 및 신체 수치심 등 3개의 잠재변인에 대해 각각 세 개의 문항 꾸러미(item parcels)를 제작하였다. 모든 문항을 사용해서 잠재변수를 구인할 경우 추정 모수의 수가 증가하여 다변량 정규분포 가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전체 문항의 합 또는 평균으로 잠재변수를 구인할 경우 한 개의 측정치로 잠재변수를 구인해야 하기 때문에 왜곡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추정할 모수의 수를 줄이면서 동시에 잠재변수 추정이 왜곡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Russell 등(1998)이 제안한 항목 묶기 방법을 채택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잠재 변수 별로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여 단일 요인을 가정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요인부하량의 절대값에 따라 각 문항별 순위를 매긴 후 가장 큰 부하량을 지닌 문항과 가장 작은 부하량을 지닌 문항을 짝으로 묶어 순서대로 세 꾸러미에 할당하였다.

한편, 일반 여대생 집단과 무용 전공 여대생 집단 간 구조모형의 적합도 및 매개효과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다집단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다변량 분산분석을 실시하여 연구변인들에 대한 집단 간 평균 차이를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집단 간 모형의 적합도 및 개별 경로계수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형태동일성과 측정동일성, 그리고 구조동일성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매개효



과의 유의도를 확인하기 위해 부트스트랩 절차를 실시하였다. 부트스트랩 절차는 Shrout와 Bolger(2002)가 제안한 방법으로서, 모수의 분포를 알지 못할 때 모수의 경험적 분포를 생성시키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1000개의 표본을 원자료(N = 252)로부터 생성하여 신뢰구간 95%에서 간접효과의 유의도를 검증하였다.

한편, BMI지수가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Moradi & Rottenstein, 2007), BMI와 관측변인 간 상관을 확인한 결과, 내면화( $r = .24, p < .001$ ), 신체수치심( $r = .33, p < .001$ ), 섭식장애 증상( $r = .35, p < .001$ )과의 상관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BMI를 공변인으로 채택하여, 유의한 상관을 보인 변인들에 대해 직접경로를 설정하고 그 영향을 통제하였다.

## 결 과

### 기술 통계 분석

구조모형 검증에 앞서 측정변인 간 상관계

수와 각 변인의 왜도와 첨도를 구하고 이를 표 1에 제시하였다. 대체적으로 변인 간에는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체 수치심과 내면화 간에는 높은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 여대생과 무용 전공 여학생을 구분하여 산출한 상관계수를 표 2에 제시하였다. 두 집단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비교한 결과 대체적으로 유사한 점수를 보고하였으나 섭식장애 증상,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 및 신체감시의 경우 무용 전공 여학생들의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집단 별로 변인 간 상관을 살펴본 결과, 무용 전공 집단의 경우 나머지 변인들과 섭식장애 증상의 상관이 모두 높은 반면, 일반 여대생들의 경우 신체감시와 신체수치심은 섭식장애 증상과 상관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집단에 따른 차이 검증

연구변인들이 집단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다변량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Box의 동일성 검증 결과 동일성 가정이 충족되지 않았다,  $F(15, 162107.256) = 25.377$ ,

표 1. 측정 변인 간 상관, 평균 및 표준편차

|          | 1 | 2    | 3     | 4     | 5     | M (SD)     | 왜도   | 첨도   |
|----------|---|------|-------|-------|-------|------------|------|------|
| 1. 성적대상화 | - | .12* | -.06  | .07   | .46** | 2.05(0.77) | 1.18 | 1.75 |
| 2. 내면화   |   | -    | .32** | .51** | .38** | 4.01(0.80) | -.25 | -.27 |
| 3. 신체감시  |   |      | -     | .26** | -.04  | 4.89(0.95) | -.31 | .43  |
| 4. 신체수치심 |   |      |       | -     | .36** | 4.17(1.00) | .16  | .13  |
| 5. 섭식장애  |   |      |       |       | -     | 3.27(0.87) | .34  | -.21 |

주. N = 252. 성적대상화 = 대인관계에서의 성적 대상화 경험, 내면화 =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의 내면화, 섭식장애 = 섭식장애 증상. \*  $p < .05$ . \*\*  $p < .01$ .

표 2. 무용전공 여학생과 일반 여대생의 측정 변인 간 상관, 평균 및 표준편차

|          |    | 1     | 2     | 3     | 4     | 5     |
|----------|----|-------|-------|-------|-------|-------|
| 1. 성적대상화 |    | -     | .12   | -.06  | .07   | .44** |
| 2. 내면화   |    | .38** | -     | .32** | .51** | .37** |
| 3. 신체감시  |    | .22*  | .37** | -     | .26*  | -.03  |
| 4. 신체수치심 |    | .46** | .51** | .37** | -     | .15*  |
| 5. 섭식장애  |    | .48** | .47** | .27** | .63** | -     |
| 무용       | M  | 1.91  | 4.50  | 5.11  | 4.06  | 3.67  |
|          | SD | 0.66  | 0.83  | 0.94  | 1.10  | 0.66  |
| 일반       | M  | 2.18  | 3.52  | 4.69  | 4.26  | 2.83  |
|          | SD | 0.84  | 0.78  | 0.91  | 0.90  | 0.66  |

주.  $N = 98$ (무용),  $154$ (일반). 무용 전공 여대생의 상관계수는 대각선 아래에, 일반 여대생의 상관계수는 대각선 위에 각각 제시하였다. 성적대상화 = 대인관계에서의 성적 대상화 경험, 내면화 =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의 내면화, 섭식장애 = 섭식장애 증상. \*  $p < .05$ . \*\*  $p < .01$ .

$p < .05$ . 따라서 Pillai's Trace값을 살펴본 결과, 변인들에 대한 전체 평균값이 집단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illai's Trace = .06  $F(6, 219) =$ ,  $p < .05$ ,  $\eta^2_p = .05$ . 집단에 따른 평균 차이를 변인별로 확인한 결과, 내면화,  $F(1, 250) = 9.372$ ,  $p < .001$ ,  $\eta^2_p = .05$ , 섭식장애 증상,  $F(1, 250) = 8.277$ ,  $p < .001$ ,  $\eta^2_p = .04$  에서 무용 전공 여학생들의 평균이 일반 여학생들의 평균에 비해 유의미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측정모형 검증

구조모형 검증에 앞서, 15개의 측정변인들이 대인관계에서의 성적 대상화 경험 등 5개의 잠재변인을 타당하게 구인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우선, 모든 변인들의 척도 및 왜도를 확인한 결과 절대값이 2를 넘지 않아 정상분포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표 1 참조).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기 위해 최대우도법을 적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측정모형이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chi^2(82, N = 252) = 230.637$ ,  $p < .001$ ; CFI = .940; TLI = .920; RMSEA = .082(90% 신뢰구간 = .72-.88). 또한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에 .76-.92까지 적재된 것으로 나타났고, 모두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 구조모형 검증

측정모형 검증에서 사용했던 최대우도법과 적합도지수를 사용하여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였다. 확인 결과, 연구모형은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chi^2(82, N = 252) = 230.637$ ,  $p < .001$ ; CFI = .940; TLI = .920; RMSEA = .082(90% 신뢰구간 = .72-.88). 연구모형은 섭식장애 증상 변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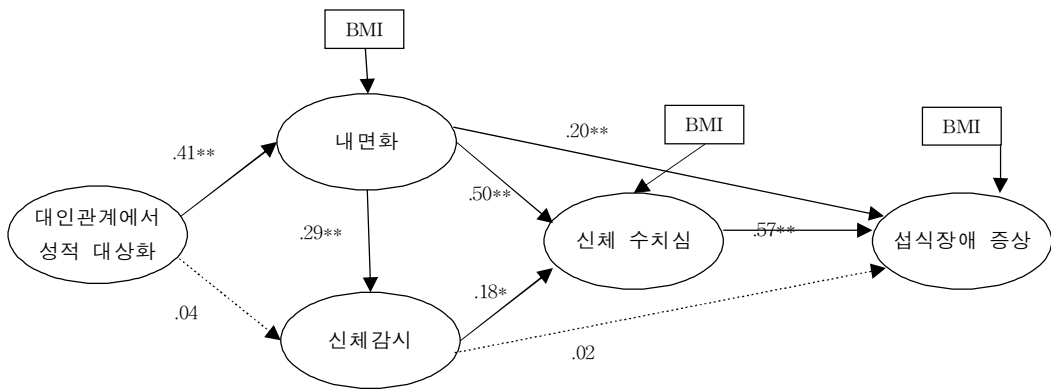


그림 4. 연구모형 검증. \*  $p < .05$ . \*\*  $p < .01$ .

의 58%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그림 4에서 볼 수 있듯이 성적 대상화 경험에서 신체감시로 가는 직접경로와 신체감시에서 섭식장애 증상으로 가는 직접경로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Martens(2005)의 제안에 따라 이 두 개의 경로를 제거한 수정모형을 경쟁모형으로 설정하고  $\chi^2$  차이검증을 통해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하였다. 성적 대상화 경험에서 신체감시, 신체감시에서 섭식장애 증상으로 가는 직접 경로계수를 각각 0으로 설정한 수정모형은 양호한 적합도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chi^2(85, N = 252) = 283.362, p < .001; CFI = .93; TLI = .91; RMSEA = .088(90\% \text{ 신뢰구간} = .78-.98)$ . 그러나 연구모형과 수정모형을 비교하기 위해  $\chi^2$  차이검증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Delta\chi^2(2, N = 252) = 52.73, p < .05$ . 이는 직접경로들이 추가된 연구모형이 비록 모형의 간명성은 떨어지지만 수정모형에 비해 적합도가 더 좋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연구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채택하였다.

#### 무용 전공 여학생과 일반 여대생에 대한 다집단 분석

집단(무용 전공, 일반 전공)에 따라 연구모형의 적합도와 경로계수가 다른지를 확인하기 위해 다집단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집단 분석은 홍세희(2001)의 제안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되었다. 우선, 자료에 가장 적합한 모형이 두 집단에서 동일한지를 살펴보고(형태동일성), 두 집단에서 측정변인들이 동일한 잠재변인을 구인하는지를 확인하였으며(측정동일성), 마지막으로 두 집단에서 경로계수들이 동일한지를 확인하였다(구조동일성).

#### 형태동일성 검증

집단 간 형태동일성을 확인하기 위해, 전체 집단에 대해 실시했던 연구모형과 수정모형의 적합도 비교를 집단별로 실시하였다. 우선, 일반 여학생들의 경우 수정모형이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chi^2(85, N = 154) = 139.764, p < .01; CFI = .95; TLI = .94; RMSEA = .078(90\% \text{ 신뢰구간} = .64-.88)$ . 연구

모형 역시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chi^2(82, N = 154) = 110.12, p < .01$ ; CFI = .98; TLI = .97; RMSEA = .057(90% 신뢰구간 = .43-.65). 무용 전공 여학생들의 경우에도 수정모형이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고,  $\chi^2(85, N = 98) = 163.75, p < .01$ , CFI = .93, TLI = .91, RMSEA = .098(90% 신뢰구간 = .89-1.12), 연구모형 또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chi^2(82, N = 98) = 142.41, p < .01$ , CFI = .95, TLI = .93, RMSEA = .083(90% 신뢰구간 = .73-.94). 집단별로 수정모형과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한 결과, 자유도 차이에 비해  $\chi^2$  차이가 크기 때문에 두 집단 모두 연구모형이 더 적합한 모형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집단의 형태동일성이 확인되었다.

**측정동일성 검증**

그 다음 절차로, 두 집단에서 측정변인들이 동일한 잠재변인을 구인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두 집단에 걸쳐 요인부하량이 동일하다고 제약을 가한 모형과 제약을 가하지 않은 모형을 비교하였는데,  $\chi^2$  차이검증 결과 두 모형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Delta\chi^2(12, N = 252) = 16.47, p > .05$ . 따라서 집단 간 측정동일성이 확인되었다.

**구조동일성 검증**

집단 간 형태동일성과 측정동일성이 성립되었으므로 집단 간 경로계수 비교를 위해 구조동일성을 검증하였다. 구조동일성을 확인하기 위해 두 집단에서 경로계수가 같다는 동일화 제약을 가한 모형과 제약을 가하지 않은 자유모형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Delta\chi^2(8, N = 252) = 20.83, p < .01$ . 이는 경로계수가 집단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어느 경로에서 집단 간 차이가 발생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가장 엄격한 모형 즉 모든 경로가 동일하다고 제약을 가한 모형과 특정 경로가 동일하지 않다고 자유롭게 허용한 모형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내면화에서 섭식장애 증상으로 가는 경로,  $\Delta\chi^2(1, N = 252) = 18.91, p < .01$ , 신체감시에서 신체 수치심으로 가는 경로,  $\Delta\chi^2(1, N = 252) = 3.93, p < .05$ , 신체 수치심에서 섭식장애 증상으로 가는 경로,  $\Delta\chi^2(1, N = 252) = 4.11, p < .05$ , 성적 대상화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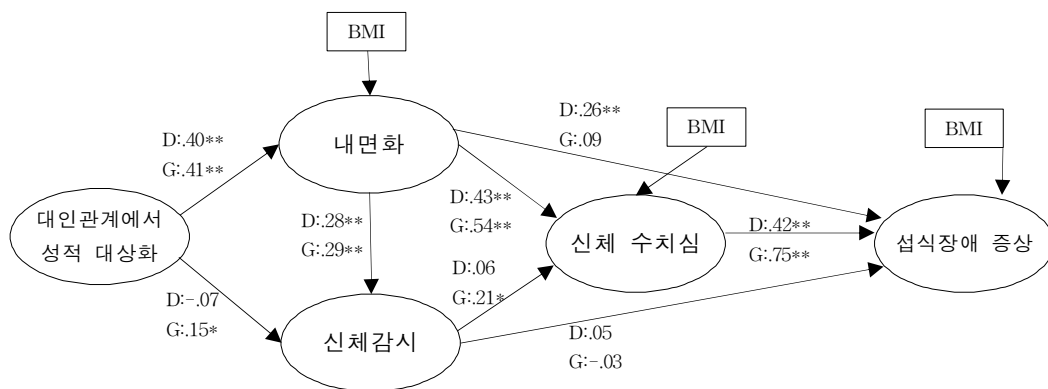


그림 5. 무용 전공 집단(D)과 일반 집단(G)의 경로계수. \*  $p < .05$ . \*\*  $p < .01$ .

에서 신체감시로 가는 경로,  $\Delta\chi^2(1, N = 252) = 3.86, p < .05$  등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에 나타난 것처럼, 무용 전공 여대생들의 경우 대인관계에서의 성적 대상화 경험이 자신의 신체를 끊임없이 감시하는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자신의 신체를 감시하는 행동이 수치심이나 부정적인 섭식행동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반면, 일반 여대생의 경우에는 대인관계에서의 성적 대상화 경험이 사회적 가치를 내면화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신체 감시행동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표 3. 집단별 연구모형의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 경로              | 총효과    | 직접효과   | 간접효과             |
|-----------------|--------|--------|------------------|
| <b>무용 전공 집단</b> |        |        |                  |
| 성적대상화경험 → 내면화   | .399** | .399** | -                |
| 성적대상화경험 → 신체감시  | .043   | -.069  | .112*(.01, .32)  |
| 성적대상화경험 → 신체수치심 | .176*  | -      | .176*(.06, .49)  |
| 성적대상화경험 → 섭식장애  | .174*  | -      | .174*(.43, .49)  |
| 내면화 → 신체감시      | .281** | .281** | -                |
| 내면화 → 신체수치심     | .453** | .435** | .018*(-.09, .15) |
| 내면화 → 섭식장애      | .433** | .255** | .178*(.03, .52)  |
| 신체감시 → 신체수치심    | .064   | .064   | -                |
| 신체감시 → 섭식장애     | -.022  | -.049  | .027*(-.07, .29) |
| 신체수치심 → 섭식장애    | .422** | .422** | -                |
| <b>일반 전공 집단</b> |        |        |                  |
| 성적대상화경험 → 내면화   | .413** | .413** | -                |
| 성적대상화경험 → 신체감시  | .274** | .154*  | .121*(.02, .38)  |
| 성적대상화경험 → 신체수치심 | .280** | -      | .280**(.21, .75) |
| 성적대상화경험 → 섭식장애  | .242** | -      | .242**(.19, .67) |
| 내면화 → 신체감시      | .292** | .292** | -                |
| 내면화 → 신체수치심     | .601** | .541** | .060*(-.12, .66) |
| 내면화 → 섭식장애      | .537** | .086   | .451**(.32, .95) |
| 신체감시 → 신체수치심    | .207** | .280** | -                |
| 신체감시 → 섭식장애     | .130*  | -.028  | .158*(.02, .43)  |
| 신체수치심 → 섭식장애    | .764** | .764** | -                |

\* $p < .05$ . \*\* $p < .01$ .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무용 전공 집단에서는 대인관계에서의 성적대상화 경험이 신체감시 행동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사회문화적 가치를 내면화하는 것에만 영향을 주어 신체수치심과 섭식장애 증상을 증가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일반 여학생들의 경우에는 대인관계에서의 성적대상화 경험이 사회문화적 가치를 내면화하고 신체감시행동을 증가시키는 것에 영향을 미쳐 신체수치심을 증가시키고 섭식장애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 집단에 따른 간접효과 검증

두 집단의 차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부트스트랩(bootstrap) 절차를 적용하여 간접효과의 유의도를 검증하였다(표 3). 원자료에서 무선 표집으로 생성된 1,000개의 자료 표본이 모수 추정에 사용되었으며, 95%의 신뢰구간을 설정하였다. 간접효과를 검증한 결과, 무용 전공 집단의 경우 성적 대상화 경험이 신체감시에 미치는 총효과나 직접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성적 대상화 경험은 모든 변인들에 대해 간접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내면화가 신체감시를 매개하여 신체수치심에 미치는 간접효과와 신체감시가 신체수치심을 매개하여 섭식장애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데, 이러한 결과는 신체감시를 매개하여 섭식장애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모두 유의미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일반 여대생의 경우 내면화가 신체수치심에 미치는 간접효과를 제외한 모든 경로의 간접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대상화 이론과 선행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대인관계에서의 성적 대상화 경험이 섭식장애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적 구조모형을 설정하고, 여자대학생들의 자료를 토대로 모형의 적합도 및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특히, 지금까지 국내에서 진행된 성적 대상화 관련 연구들과는 달리, 대인관계에서의 성적 대상화 경험과 이를 내면화하는 과정을 선행 변인으로 포함시켜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였다. 또한 외모에 대한 사회적 압력이 섭식행동에 미치는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일반 여대생과 무용 전공 여대생을 구분하여 모형의 적합도 및 경로계수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전체 집단 및 각 집단에 대한 연구모형은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집단에서 연구모형은 섭식장애 증상 변량의 58%, 무용 전공 집단은 49%, 일반 집단은 68%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인관계에서의 성적 대상화 경험을 선행 변인으로 포함시킨 Augustus- Horvath와 Tylka (2009)의 62.2%와 유사한 결과이다. 따라서 성적 대상화 경험과 내면화를 연구변인으로 포함하는 대상화 모델은 우리나라 여자대학생들에게도 적용 가능하며, 일반 여대생뿐만 아니라 무용 전공생에게도 적합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구체적인 연구결과 및 시사점을 논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대인관계에서의 성적 대상화 경험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와 신체감시 그리고 신체 수치심을 통해 섭식장애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모형을 검증한 결과, 성

적 대상화 경험과 신체감시는 비록 섭식장애 증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각각 내면화와 신체 수치심을 통해 섭식장애 증상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리나라 여자대학생들은 대인관계에서 경험하는 대상화 경험을 통해 외모를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타인의 관점을 내면화하게 되고, 이는 결국 끊임없이 자신의 신체를 의식하고 감시하는 현상으로 이어짐을 의미한다. 또한 이러한 내면화와 지속적인 신체 감시 행동은 신체에 대한 수치심을 야기하여 결국 섭식장애 증상을 증가시킨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는 대인관계에서 여자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성희롱과 성차별적 경험이 신체수치심을 증가시킨다는 Lindberg, Grabe와 Hyde(2007)의 연구, 외모에 대한 사회적 기준의 내면화가 신체감시 및 신체 수치심을 매개하여 섭식장애 증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Moradi와 Subich(2004)의 연구, 그리고 여대생의 공격 자기의식이 신체 감시와 신체 수치심을 매개하여 섭식장애 증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손은정(2007)의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다음으로, 일반 여대생과 무용 전공 여대생을 구분하여 집단에 따라 모형의 적합도 및 경로계수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첫째, 두 집단에서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신체감시와 관련된 부분이었다. 무용 전공자들의 경우 신체감시가 전체 모형에서 차지하는 설명력이 거의 없거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무용 전공자들은 대인관계에서의 성적 대상화 경험을 통해 스스로를 평가받는 대상으로서 내면화하고 이에 신체수치심을 느껴 부정적인 섭식 태도를 보이는 반면, 성적 대상화 경험이 스스로의 신체를 감시하는 행동을 증가시키거나, 신체를 감시하는 행동이 신체

수치심에 영향을 미치거나 부정적인 섭식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반 여대생들의 경우 성적 대상화 경험이 사회문화적 가치를 내면화하거나 신체감시 행동을 유발하고, 신체감시는 신체 수치심을 증가시켜 결국 섭식장애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용 전공자들의 신체감시 행동이 섭식장애 증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본 연구결과는 Tiggemann과 Slater(2001)의 연구와 상반되는 것이다. Tiggemann과 Slater는 과거에 발레리나로 활동했던 50명의 여성과 심리학을 전공하는 51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대상화 관련 변인들을 비교하였는데, 심리학 전공 여성들에 비해 발레 전공 여성들의 신체감시 수준이 더 높고 심리학 전공자들과는 달리 섭식장애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Tiggemann과 Slater의 연구결과가 본 연구결과와 다른 이유는 연구참여자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본 연구와는 달리 Tiggemann과 Slater의 연구는 현재 무용을 전공하고 있는 여성들이 아니라 과거에 발레를 전공했던 여성들을 참여대상으로 하였는데, 이 점이 연구결과의 차이를 야기했을 가능성이 있다. 즉, 과거에 발레를 전공했던 여성들은 성장하면서 경험했던 사회적 압력의 영향으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를 내면화하고 있지만, 현재 자신의 몸에 대해서는 발레리나로 활동했던 시절에 비해 만족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Tiggemann & Slater, 2001). 따라서 자신의 신체를 끊임없이 감시하게 되고 예전의 마른 몸과 비교하면서 신체수치심을 느끼고 결국 부정적인 섭식 행동을 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현재 무용을 전공하고 있는 여대생들의 경우 절식이나 약물

복용과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체중을 조절하고 실제로도 일반 집단에 비해 낮은 BMI지수를 보고하고 있음을 고려했을 때, 집단에서의 압력을 내면화한 결과로 스스로 신체감시를 하게 되지만, 신체를 감시하는 행위가 자신의 신체에 대한 수치심이나 섭식장애 증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일반 여대생 집단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변인은 신체 수치심인 반면, 무용 전공 집단에서는 내면화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여대생의 경우 내면화나 신체감시는 부정적인 섭식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신체수치심을 매개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 수치심의 매개효과에 대한 본 연구결과는 기존의 대상화 관련 연구들과 일치하는 것이다(Augustus-Horvath, & Tylka, 2009; Tiggemann, & Kuring, 2004; Tylka, & Hill, 2004). 반면, 무용 전공 집단에서는 사회문화적 가치를 내면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는데, 일반 여대생들과는 달리 신체 수치심을 매개하지 않고도 섭식장애 증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무용 전공 집단에서 느끼는 사회문화적 압력으로 인한 가치의 내면화가 보다 직접적으로 거식증이나 폭식증과 같은 섭식장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즉, 일반 집단에 비해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압력이 더 큰 무용 전공 집단에서 마른 몸에 대한 가치의 내면화가 더 강하게 일어날 수 있고, 이는 결국 섭식장애 증상을 증가시키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 선행변인으로 설정한 대인관계에서의 성적 대상화 경험은 섭식장애 증상 변량의 16.4%(무용 전공 집단)와 18.2%(일반 집단)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수치는 기존의 연구에서 보고하고 있는 5-7%(Augustus-Horvath & Tylka, 2009)의 설명량에 비해 높은 것이다. 이는 한국 여성들에게 성희롱과 같은 대인관계에서의 성적 대상화 경험이 섭식장애 증상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록 큰 차이는 아니지만 무용 전공 집단에 비해 일반 여대생 집단에서 성적대상화 경험이 섭식장애 증상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무용 전공 여대생들의 경우 주로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여성들이고 따라서 남성들로부터 가해지는 성적 대상화 경험의 빈도 및 정도가 적기 때문에 발생한 것일 수 있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무용 전공 여대생이 가지는 여성으로서의 자긍심이나 예술가로서의 정체성 및 자신의 전공에 대한 몰입 때문에 대상화 경험이 섭식장애 증상에 미치는 영향력이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도 여성주의적 의식이나 정체성이 강한 여성들의 경우 성희롱과 같은 성적대상화 경험이 부정적인 섭식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보고하였고(Peterson, Grippo, & Tantleff-Dunn, 2008; Sabik & Tylka, 2006), 신체활동이 왕성하고 그것에 몰입하는 여성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여성들에 비해 대상화 경험이 미치는 영향력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Daubenmier, 2005). 또한 외모에 상관없이 높은 수준의 자신감이나 긍정적인 사고, 대처 기술이나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경우에도 성적대상화 사건을 경험했을 때 부정적인 심리적 결과를 완충시키는 중재효과가 있다고 보고되었다(Tylka & Wilcox, 2006).

본 연구결과는 여성들의 심리적 어려움을 이해하고 섭식장애 증상을 줄이는 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본 연



구결과는 섭식 관련 문제를 보이는 여성들을 이해하고 개입함에 있어서 개인 내적인 변인들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여성들이 실제로 경험하는 성적 대상화를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즉, 섭식장애나 외모에 대한 불만으로 고통 받는 여성들의 문제를 단순히 개인이 경험하는 심리내적인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여성들을 성적인 대상으로 간주하는 사회문화적 분위기 및 실제 경험들에도 초점을 두어야 함을 의미한다. 둘째, 여성들이 경험하는 섭식장애나 우울 등 심리적인 문제가 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성적대상화 경험에 기인하고 있다는 점이 밝혀졌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 및 개입이 필요하다. 따라서 작게는 학교나 가정 내에서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거나 크게는 관련 법안을 강화시키는 방법으로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시선을 방지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편, 본 논문에서 사용한 대인관계에서의 성적 대상화는 성희롱과 같이 남성의 시선에 근거한 것이지만 실제 여성들 간에도 서로의 외모에 대해 끊임없이 평가하거나 응시하는 대상화 경험이 발생한다. 이러한 자각에 따라 남성들에 의해 가해지는 성적 대상화 경험 뿐 아니라 여성들 간에 이루어지는 성적대상화 경험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Cultural Sexual Objectification Scale: CSOS)가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Hill & Fischer, 2008). 따라서 남성 뿐 아니라 여성들도 자신이 누군가를 성적으로 대상화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러한 행동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성희롱과 같은 심각한 수준의 언행이나 태도가 아니라도 자신이 타인의 외모에 대해 지적하는 것은 물론 과도하게 칭찬하는 것 또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선

행연구에서도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마르고자 하는 욕구와 정적인 상관을 보였으며(Gilbert & Meyer, 2003), 신체불만족과 섭식장애 증상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Vander Wal & Thomas, 2004). Crozier와 Burnham(1990)도 자신의 행동이나 외모가 타인의 평가 대상이 됨을 인식함에 따라 사회불안이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성희롱과 같은 성적 대상화 경험 뿐 아니라 동성이나 가족 및 친구 사이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외모에 대한 평가가 서로를 대상화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고 결론적으로 심리적 어려움 및 장애를 가져올 수 있음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논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인관계에서의 성적 대상화 경험 척도에 대한 타당도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한계가 있다. 번역-역번역 절차를 거쳐 척도를 번안하였고 요인분석을 통해 요인구조가 안정적임을 확인하였으나, 보다 엄격한 절차를 통해 척도를 타당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 연구에서는 대표성 있는 표본을 사용하여 엄격한 타당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 참여한 여학생들이 전국의 모든 여학생들을 대표한다고 볼 수 없고, 특히 두 집단의 사례수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구조방정식을 적용한 연구결과를 해석함에 있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큰 표본을 사용하여 본 연구결과가 재현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구조모형이 무용 전공 여학생들의 섭식장애 증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적절한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섭식장애 증상의 49%만을 설명했다는 사실은 이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관련 변인들을 탐색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손은정

(2007)이 제기한 공적 자기의식뿐만 아니라 대인관계에서의 대상화 경험 이외의 다른 성적 대상화 경험(예, 성적 대상화 미디어 노출) 등을 변인으로 채택하여 그 영향력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권영숙 (2008). 여대생의 비만스트레스와 관련 요인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간호학회지*, 19(3), 431-442.
- 김민희 (1999). 발레 무용수의 섭식 장애의 원인과 예방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38(1), 713-721.
- 김완석, 유연재, 박은아 (2007). 한국판 객체화 신체의식 척도(K-OBCS): 개발과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6(2), 329-349.
- 손은정 (2007). 공적 자기의식, 신체에 대한 감시, 신체에 대한 수치심이 섭식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3), 735-750.
- 선안남 (2008). 자기 대상화, 신체 수치심이 여대생의 섭식 행동에 미치는 영향: 성역할 정체감 유형에 따른 비교.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오세진, 이만균 (2006). 발레무용수, 운동선수 및 일반인의 식이습관과 운동량이 월경특성과 식이장애에 미치는 영향. *체육과학연구*, 17(2), 25-37.
- 육영숙 (2008). 여대생의 신체상과 섭식행동 및 자아 존중감의 관계. *한국스포츠심리학회*, 19(4), 105-115.
- 이민규, 고영택, 이혜경, 황을지, 이영호 (2001). 한국판 식사태도 검사-26의 타당화. *정신신체의학*, 9(2), 153-163.
- 이상선, 오경자, (2003). 외모 관련 사회문화적 태도 설문지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2(4), 913-926.
- 이정운 (2003). 여대생의 이상식사행동 수준에 따른 심리적, 정서적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5(1), 111-124.
- 이종희, 안정욱 (2000). 예술전공(무용, 음악, 미술) 대학생과 비예술전공 대학생의 성격 특성에 관한 연구. *체육학논문집*, 28, 47-53.
- 임희진, 박형란, 구현경 (2009). 아동·청소년 비만 실태 및 정책 방안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조선일보. 한국여성 살빼기 노력 '세계최고'. 2006년 5월 17일자.
- 최상아 (2008). 무용수들의 체형만족도에 따른 섭식 절제와 섭식 장애와의 관계.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윤선 (2008). 신체표현활동 전공 여자대학생 집단의 체질량 지수와 신체상 불만족 간의 관계. *한국체육측정평가학회지*, 10(2), 1-13.
- 홍금희 (2006). 외모의 사회문화적 태도와 신체 비만도가 신체 이미지와 신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산업학회지*, 8(1), 48-54.
- 홍세희 (2001). 구조방정식 모형의 기초와 응용. *워크샵 교재*. Department of Education and Psychology, University of California. Santa Barbara.
- Augustus-Horvath, C. L., & Tylka, T. L. (2009). A test and extension of objectification theory as it predicts disordered eating: Does Women's Age Matter? *Journal of Counseling*

- Psychology, 52, 253-265.
- Brooks-Gunn, J., Warren, M. P., & Hamilton, L. H. (1987). The relation of eating problems and anenorrhea in ballet dancers. *Medicine and Science in Sport and Exercise*, 19, 41-44.
- Buchanan, T. S., Fischer, A. R., Tokar, D. M., & Yoder, J. D. (2008). Testing a culture specific extension of objectification theory regarding African American women's body image. *The Counseling Psychologist*, 36, 699-718.
- Calogero, R. M., Davis, W. N., & Thompson, J. K. (2005). The role of self-objectification in the experience of women with eating disorders. *Sex Roles*, 52, 43-50.
- Cattarin, J. A., Thompson, J. K., Thomas, C., & Williams, R. (2000). Body image, mood, and televised images of attractiveness: The role of social comparison. *Journal of Social and Psychology*, 19, 220-239.
- Cozier, W. R., & Burnham, M. (1990). Age-related differences in children's understanding of shyness.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8, 179-185.
- Cutler, S., & Nolen-Hoeksema, S. (1991). Accounting for sex differences in depression through female victimization: Childhood sexual abuse. *Sex Roles*, 24, 425-438.
- Daubenmier, J. J. (2005). The relationship of yoga, body awareness, and body responsiveness to self-objectification and disordered eating.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9, 207-219.
- Deep, A. L., Lilienfeld, L. R., Plotnicov, K. H., Pollice, C., & Kaye, W. H. (1999). Sexual abuse in eating disorder subtypes and control women: The role of comorbid substance dependence in bulimia nervosa.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24, 1-10.
- Downs, D. M., James, S., & Cowan, G. (2006). Body Objectification, self-esteem,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 A comparison of exotic dancers and college women. *Sex Roles*, 54, 745-752.
- Finch, J. F., & West, S. G. (1997). The investigation of personality structure: Statistical model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1, 439-485.
- Fitzgerald, L. F., Drasgow, F., Hulin, C. L., Gelfand, M. J., & Magley, V. J. (1997). The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sexual harassment in organizations: A test of an integrated model.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2, 578-589.
- Fredrickson, B. L., & Roberts, T. (1997). Objectification theory: Toward understanding women's lived experience and mental health risks.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1, 173-206.
- Fredrickson, B. L., Roberts, T., Noll, S. M., & Twenge, J. M. (1998). That swimsuit becomes you : Sex differences in self-objectification, restrained eating, and math performa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 269-284.
- Garner, D. M., & Garfinkel, P. E. (1979). Sociocultural factors in the development of anorexia nervosa. *Psychological Medicine*, 10, 647-656.
- Gilbert, N., & Meyer, C. (2005). Fear of negative

- evaluation and the development of eating psychopathology: A longitudinal study among nonclinical women.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37, 307 - 312.
- Grabe, S., Hyde, J. S., & Lindberg, S. M. (2007). Body objectification and depression in adolescents: The role of gender, shame, and rumination.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31, 164-175.
- Harrison, K., & Cantor, J. (1997). The relationship between media consumption and eating disorders. *Journal of Communication*, 47, 40-67.
- Heinberg, L. J., Thompson, J. K., & Stormer, S. (1995).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s appearance questionnaire.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 17, 81-89.
- Hill, M. S., & Fischer, A. R. (2008). Examining objectification theory: Lesbian and heterosexual women's experiences with sexual- and self-objectification. *The Counseling Psychologist*, 36, 745-776.
- Jung, J., & Forbes, G. B. (2007). Multidimensional assessment of body dissatisfaction and disordered eating in Korean and U. S. college women: A comparative study. *Sex Roles*, 55, 39-50.
- Kozee, H. B., Tylka, T. L., Augustus-Horvath, C. L., & Denchik, A. (2007). Development and psychometric evaluation of the Interpersonal Sexual Objectification Scale.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31, 176-189.
- Kurtzman, F. D., Yager, J., Landsverk, J., Weismeier, E., & Bodurka, D. C. (1989). Eating disorders among selected female student populations at UCLA. *Journal of American Diet Association*, 89, 906-909.
- Lei, M., & Lomax, R. G. (2005). The effect of varying degrees of nonnormality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Quarterly*, 12, 1-27.
- Lindberg, S. M., Grabe, S., & Hyde, J. S. (2007). Gender, pubertal development, and peer sexual harassment predict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in early in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17, 723-742.
- Martens, M. P. (2005). The us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counseling psychology research. *The Counseling Psychologist*, 33, 269-298.
- Mckinley, N. M. (1998). Gender differences in undergraduates' body esteem: The mediating effect of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and actual/ideal weight discrepancy. *Sex Roles*, 39, 113-123.
- Mckinley, N. M., & Hyde, J. S. (1996). The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Scale: Development and validation.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0, 181-215.
- Moradi, B., Dirks, D., & Matteson, A. (2005). Roles of sexual objectification experiences and internalization of sociocultural standards of beauty in eating disorder symptomatology: An examination and extension of objectification theor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2, 420-428.
- Moradi, B., & Subich, L. M. (2004). Examining

- the moderating role of self-esteem in the link between experiences of perceived sexist events and psychological distres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1, 50-56.
- Moradi, B., & Rottenstein, A. (2007). Objectification theory and deaf cultural identity attitudes: Roles in deaf women's eating disorder symptomatolog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4, 178-188.
- Morry, M. M., & Staska, S. L. (2001). Magazine exposure: Internalization, self-objectification, eating attitudes, and body satisfaction in male and female university students. *Canadian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 4, 269-279.
- Peterson, R. D., Grippo, K. P., & Tantleff-Dunn, S. (2008). Empowerment and powerlessness: A closer look at the relationship between feminism, body image, and Eating Disturbance. *Sex Roles*, 58, 639-648.
- Russell, D. W., Kahn, J. H., Spoth, R., & Altmaier, E. M. (1998). Analyzing data from experimental studies: a latent variabl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roach.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 18-29.
- Sabik, N., & Tylka, T. L. (2006). Do feminist identity styles moderate the relation between perceived sexist events and disordered eating?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30, 77-84.
-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 422-445.
- Sinclair, S. L. (2006). Object lessons: A theoretical and empirical study of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in women. *Journal of Mental Health Counseling*, 28, 48-68.
- Tiggeman, M., & Slater, A. (2001). A test of objectification theory in former dancers and non-dancers.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5, 57-64.
- Tiggemann, M., & Kuring, J. K. (2004). The role of body objectification in disordered eating and depressed mood. *British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43, 299-311.
- Tylka, T. L., & Hill, M. S. (2004). Objectification theory as it relates to disordered eating among college women. *Sex Roles*, 51, 719-730.
- Tylka, T. L., & Wilcox, J. A. (2006). Are intuitive eating and eating disorder symptomatology opposite poles of the same construc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3, 474-485.
- Vander Wal, J. S., & Thomas, N. (2004). Predictors of body image dissatisfaction and disturbed eating attitudes and behaviors in African American and Hispanic girls. *Eating Behaviors*, 5, 291-301.
- 1 차원고접수 : 2010. 11. 6.  
심사통과접수 : 2010. 12. 13.  
최종원고접수 : 2010. 12. 25.

**Roles of Interpersonal Sexual Objectification Experiences  
and Internalization of Standards of Beauty in Eating Disorder  
Symptomatology: A Test and Extension of  
Objectification Theory with Dance Majors**

**Si Yeon Kim**

**Keun Young Baek**

**Young Seok Seo**

Yonsei University

This study extends the literature on eating disorder symptomatology by testing, based on extant literature on objectification theory, a model that examines (a) links of interpersonal sexual objectification experiences to eating disorder-related variables and (b) the mediating roles of internalization of sociocultural standards of beauty, body surveillance, and body shame. The present study also tested these core constructs with dance majors, as their experiences with these constructs may differ. A multiple-groups analysis comparing these women ( $n = 98$ ) with non-dancers ( $n = 154$ ) indicated that objectification theory can be extended to the dance majors. However, structural invariance analyses revealed that the relationships among the study variables may not be identical for these groups. The dance majors had a stronger relationship between internalization and disordered eating but weaker relationships between body surveillance and body shame, between body shame and disordered eating, and between interpersonal sexual objectification experiences and body surveillance than did non-dancers. Implications for practice and future research are discussed.

*Key words* : *objectification theory, interpersonal sexual objectification experiences, internalization, eating disorder symptomatology, dance majors, multi-groups analysis*